

사회

“쌀값 하락 대책 내놔라” 성남 農心 농협 RPC ‘봉쇄’

〈종합미곡처리장〉

저가미 공급 중단·쌀 대북 지원 법제화 촉구

전남 5개 市·郡 버 갈아엎기 등 동시다발 시위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농협에 저가미 공급 중단 및 쌀 대북 지원 법제화 등 쌀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농협RPC(종합미곡처리장)를 봉쇄하거나 논벼를 갈아엎는 등 지역별로 동시다발 시위에 돌입했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 전남연맹에 따르면 이날 나주·무안·보성·장흥 등 4개지역 농민들은 6개 RPC에서 쌀 반입·반출을 저지하는 봉쇄 시위를 벌였다.

나주농민회 소속 농민 20여명은 7일 오전 10시 다시RPC 입구를 트랙터와 천막 등으로 봉쇄하고 나락 500kg을 도로에 뿌리면서 실효성 있는 쌀값 폭락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은 올 추곡 40kg에 대해 5만원의 선지급금과 농민은 내년 3월에 최종 수매가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대형 유통업체에 4만원(20kg) 이하의 저가미 공급을 중단하고 올해 추곡을 일괄구매해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면 내년 초에는 나락 40kg 가격이 6만원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 남평·동강, 무안 일로, 보성, 장흥RPC에서도 농민 수십명이 농기계

와 천막, 플래카드 등으로 RPC의 입구를 막아 쌀 반입·반출을 저지했다.

또 순천지역 농민 500여명은 이날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전남도에 쌀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440억원에서 내년엔 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추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0월 중순

에 쌀 아직시위를 벌여 정부에 쌀 대북지원 법제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영광농민회 소속 농민 3명은 6일부터 농협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농협 영광군지부 2층 사무실에서 ‘쌀값 보장’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쌀 유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RPC가 오히려 쌀값하락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RPC 봉쇄 투쟁에 돌입했다”며 “최저생산비를

감안한 4만원(20kg 쌀) 이하의 저가미 공급을 중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선지급금은 5만원이상 지급해야 하며, 농협은 더 이상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쌀값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 광주시농민회는 8일 오전 10시30분 분량동 풍속마을 앞 1천 983㎡(600평) 논에서 ‘쌀문제 해결을 위한 나락 갈아엎기 투쟁’을 벌인 후 송정통합 RPC 봉쇄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나주시 농민회가 7일 오전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농협과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다시RPC(종합미곡처리장)를 농기계와 천막 등으로 봉쇄한 뒤 나락을 도로에 뿌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경부 산하 퇴직 고위공무원 산하 기관 재취업

영산강환경청 5명 ‘최다’

관리·감독 부실 논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 4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퇴직한 환경부 고위 공무원 49명 가운데 90%(44명)가 환경부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5명의 고위 공무원이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7개 유역·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았다. 5명의 고위 공무원 중 지난해 10월 퇴직한 모 서기관과 올해 2월 퇴직한 모

부이사관은 1년도 채 되지않아 전남 지역 환경기술센터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퇴직공무원 17명이 재취업한 14개 환경관련 협회(단체)만을 분석한 결과 협회 임원의 평균 연봉은 9천253만원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로 자리를 옮긴 17명의 퇴직공무원 중 2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출신으로서 각각 1억1천 700만원과 9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 고액 연봉자들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뺏다’ 첨단 112 순찰차

앞뒤 칸막이·CCTV·LED 경광등 설치

2천cc급 광주에 5대



999cc ‘꼬마 순찰차’에 이어 최근 2천cc ‘첨단 순찰차’가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다. 앞뒤 좌석 사이에 강화플라스틱 칸막이(사진)와 CCTV를 설치해 범인 이송 때 난동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배기량이 커진 만큼 기동력도 뛰어나다. 또 LED 경광등을 설치해 멀리서도 눈에 쉽게 띄는 등 외관과 기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광주동부경찰서 급남지구대에 ‘첨단 순찰차’ 1대를 배치한 것을 비롯 ▲북부경찰서(일곡·역전지구대) 2대 ▲서부경찰서(삼무) 1대 ▲광산경찰서(첨단) 1대가 도심을 누비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첨단 순찰차 도입에 대한 경찰 안팎의 평은 좋은 편이다. 우선 만취한 시민이나 피의자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머리 뒷부분 등을 수없이 맞아야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은 더 이상 ‘매맞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또 앞뒤 좌석 사이 칸막이와 뒷좌석 유리창은 강화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숨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난동 과정을 앞좌석에 설치된 CCTV에 담을 수도 있다.

다만 확대 보급하기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다. 기존 1천600cc 순찰차는 1천300만원대에 보급됐으나, 첨단 순찰차는 이보다 700만원 가량이 비싼 2천만원선에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보급된 첨단 순찰차는 경찰과 피의자의 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치안센터 6곳 파출소 전환 요청

광주지역에 6곳의 파출소가 6년 만에 부활·신설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지역의 치안수요 등을 분석, 6곳의 지구대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지구대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다.

파출소 전환승인을 요청한 곳은 동부경찰 무등지구대 학서치안센터를

포함한 서부경찰 농성지구대 광천치안센터, 남부경찰 효덕지구대 주월치안센터, 북부경찰 문흥지구대 석곡치안센터, 일곡지구대 건국치안센터, 광산경찰 첨단지구대 비아치안센터 등 6곳이다.

경찰은 승인요청이 날 때까지 해당 치안센터에 112 순찰차는 물론 24시간 근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

동거녀 살해 해남군청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7일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해남군청 일용근로자 양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0일 자정께 해남군 해남읍 동거녀 김모(47)씨와 함께 사는 집에서 다짜고짜 김씨를 마당으로 끌고간 뒤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게 해 다음달 1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921) 김장동



고흥군청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병중 고흥군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흥군청을 압수수색했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남 고흥군청 3개 사무실에서 군 인사와 홍보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말 읍·면 순회를 하면서 한 마을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새벽 택시승객 강도 돌변 ‘돈 내놔’

상다발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7일 광주산경청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이날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A아파트 정문에 정차한 이모(34)씨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6만1천원 등을 든 지갑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8명의로 드러난 김씨는 경찰에서 “만취 상태에서 술집에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김씨가 범행 장소에서 300m 떨어진 공터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angsoo' (山水土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untain landscape. The text includes '山水土風' in large characters and '전국 최저가 판매' (National lowest price sale).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Bidet Plaza' (비데프라자) featuring a woman's face. The text includes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Bidet Plaza 15th anniversary) and '노비타 비데 세일!!' (Nobita Bidet Sale!!). It lists a price reduction from 399,000 to 219,000 for a bidet model BD-KA150.